

## 미국사회에서의 가족소득 불평등 확대 요인\*

이현송

본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1970년대 중반 이래 소득 구조가 점차 불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요인을 가족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가족소득 불평등 변화 원인의 규명은 Current Population Survey, 1977-1991년의 15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포괄적 불평등도의 변화 및 하위, 중간, 상위 소득 계층 각각의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족소득 불평등의 변화 요인은 크게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요소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요소 및 기타의 요소로 구분된다. 산업구조 변화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는 산업 공동화론과 탈산업사회론 서로간에 상반된 예측에 대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서비스 산업 확대의 효과는 두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하위 부문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변화중 특히 미혼모의 증가가 가족구조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참여의 영향력은 과거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소득평준화를 가져오기보다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양상을 탐지했다. 기타 인구의 노령화, 경기 변화 등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효과를 종합할 때 미국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소득불평등이 축소되기를 보다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 I. 들어가는 글

미국 사회에서 1970년대 중반 이래 소득구조가 점차 불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있어왔다. 이제 이러한 소득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한 관측의 면에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듯 하다.<sup>1)</sup>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아울러 그 변화가 주위 환경의 일시적 혹은 주기적 변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의 결과인지를 판독하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가족소득의 불평등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어떤 요인에 의하여 확

\* 이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Sources of Change in Family Income Inequality" (1994, Ohio State University)의 일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분석의 세부 결과 및 다양하게 시도된 접근들은 이 글에서 생략한다.

1) 가족소득분포 및 남성근로자 임금 분포의 추이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위해서는 Levy & Murnane (1992)와 Karoly (1992, 1993)을 참조할 것.

대되어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소득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한 관찰및 예측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쌓여 있으나, 그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드물거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논의를 살펴 보면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을 1970년대의 두차례의 오일 파동이나 1980년대 초반의 일시적인 경기 침체 혹은 소위 “Reaganomics”라고 하여 레이건 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불평등 확대의 추세가 1990년대까지 연장되는 조짐을 보임으로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보다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로부터 설명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1970년 중반으로부터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이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파괴가 지난 20여년간의 가족소득 불평등 확대와 관련된 주요 구조적인 요인임을 밝히며, 여성노동참여의 지속적 상승이 앞으로 중요한 추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가족소득 불평등의 확대 경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원인 분석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포괄적 지표로서의 소득불평등(aggregate inequality)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중간소득계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쟁점(“Declining Middle” thesis)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것이다. 지난 연구들이 단편적인 수개의 요인을 선택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연구자가 조합하는 요인들의 집합에 따라 결론이 서로 상반되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포괄적인 요인들의 집합에 대하여 보다 염밀한 분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서로 모순적인 기준의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본고는 크게 네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다음 절에서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둘러싼 제 가설의 뒷받침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검토한다. 제 3절에서는 소득불평등을 둘러싼 방법론적 논의 및 본 연구에 사용된 검증모델과 분석 자료에 대한 검토가 뒤따른다. 제 4절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추세에 대한 경험적 확인 작업이 이루어 진다. 이 절에서는 포괄적 지표로서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간소득 계층이 축소된 반면 하위 소득층과 상위 소득층이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한다. 제 5절에서 지니(Gini) 소득불평등 지수 및 각 소득계층의 비율을 회귀분석함으로써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을 검토해봄과 동시에, 각 소득 계층이 왜 증가 혹은 감소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소득불평등 확대의 요인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추이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안이 결론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된다.

## II. 이론적 검토

가족소득 불평등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설명은 가족소득의 구성 부분내에서의 변화 요인과 소득 분포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 양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가족소득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또다시 두가지의 요인, 즉 가족 구성원들의 임금소득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구성원의 임금소득 이외에 가족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다섯개의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인들의 집합으로 묶어 검토한다. 다섯개의 요인 집합은 다음과 같다 : 1) 인적자본과 관계된 요인들, 2)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요인들, 3) 가족구조 및 여성의 노동참여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들, 4) 사회복지 정책 및 거시경제조건의 변화, 5) 인구 구조의 변화. 다음에서 이 다섯개의 요인 집합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sup>2)</sup>

### 1. 인적자본과 관계된 요인들

지금까지 임금결정에 관한 가장 영향력있는 설명은 인적자본론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임금 수준이 그가 성취한 교육 및 경험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족소득의 분포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리스카비지 등(Ryscavage 등, 1992)은 교육 수준의 전반적 상승은 빈계재충을 감소시킬 것이며 소득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적 자본론에 입각하여 주장한다.

교육과 소득의 분포에 있어서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논의는 쿠즈네츠(Kuznets)의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 분포의 상관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역 U자형 가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Kuznets, 1955). 그에 따르면 경제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 분포가 보다 불평등한 방향으로 전개되나 경제 발전에서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소득 분포는 점차 평준화되며,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평균 교육 수준의 향상은 소득 분포의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블루스톤과 해리슨(Bluestone & Harrison, 1982, 1988)을 중심으로 한 산업공동화론자 혹은 스텐백과 노엘(Stanback & Noyelle, 1982)을 선두로 한 신경제론자들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교육의 투자회수율에 변화를 가져오고

2) 각 요인별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개략적 검토를 위하여는 〈표 1〉을 참조할 것.

〈표 1〉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변수 및 변화 방향

변 수	이론적 배경	포괄적 불평등에 대한 예측	소득중간층의 증감에 대한 예측	자료원**
<u>종속 변수</u> 지니계수 소득중간층 비율				CPS CPS
<u>인적 자본</u> 평균 교육수준 교육수준의 표준편차 대졸자이상의 비율	인적 자본론/ Kuznets의 가설 인적 자본론 인적 자본론/ 산업공동화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증가 불명확 증가 감소	CPS CPS
<u>산업구조, 노동시장</u>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	산업공동화론 산업공동화론/ 탈산업사회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불명확	CPS CPS
전기, 가스, 통신업 생산자 서비스 유통업 의료 및 교육 개인 서비스 공공행정 서비스		감소 증가 증가 불명확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불명확 감소 증가	
임시고용의 비율 소규모사업장* 종사자비율	산업공동화론 이중시장구조론	증가 증가	감소 감소	CPS CB
가족, 복지, 여성 노동참여 여성가장 가족 비율 AFDC 지급율 여성 노동참여율	가족구조의 변화 복지정책의 효율성 소득 평준화 효과	증가 감소 감소	감소 불분명 증가	CPS CPS CPS
<u>인구, 경제 조건</u> 젊은 인구 비율 (25-34세) 노년 인구 비율 (65+ 세) 비백인 비율	통제 변수 노령화의 영향 통제 변수	증가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SA SA SA
실업률 주총생산(GSP) 성장률	경기 순환의 영향 경기 순환의 영향	증가 감소	감소 증가	SA & CPS SCB
<u>생태학적 요인</u> 도시 거주자 비율 주의 인구 규모	지역적 차이 통제 지역적 차이 통제	불분명 불분명	불분명 불분명	SA CPS

\*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은 19인 이하의 고용 사업장으로 함

\*\* CPS : Current Population Survey, SA : Statistical Abstracts of the US., CBP : County Business Patterns, SCB : Survey of Current Business

있다고 주장한다(Noyelle, 1986). 생산과정의 기계화 및 자동화와 생산조직에 있어서의 관료화는 생산과정에 있어 대인관계 및 정보처리의 중요성을 높이는 대신 작업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전자의 기술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주로 양성되므로 따라서 대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보다 서비스 산업이 확대될수록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육을 축으로 한 소득 불평등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요인으로 다음의 세가지, 즉 평균 교육 수준, 대학 졸업자의 비율, 교육 수준의 불평등 정도(표준 편차로 표현됨)를 설명 요인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은 <표 1>과 같다.

## 2.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1960년대이래 미국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맞추어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의 확대가 임금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중간 소득 계층을 감소시킨다는 관찰은 끊임없이 보고되었다.<sup>3)</sup> 문제는 이러한 관찰을 설명할 합의된 이론적 틀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에 관하여 두개의 이론이 서로 상반되는 설명을 제시한다. 하나는 산업공동화론(Deindustrialization thesis)이며 다른 하나는 탈산업사회론(Post-industrial society thesis)이다.

블루스톤과 해리슨(Bluestone & Harrison, 1982, 1986, 1988)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산업의 구조적 성격의 차이로 부터 임금 구조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중간층 임금의 고용자가 많이 종사하는 균형된 임금 구조를 갖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양극화된 임금 구조를 갖는 서비스업이 증가함으로서 전체 소득분포에서 중간소득층의 감소를 가져 오며 그 결과 소득 구조가 보다 불평등하게 되리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논의는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어 <표 2>에서 보듯이 이 이론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를 양산했다. 그러나 감소하는 중간소득층의 부분이 하위소득 혹은 상위소득층 중 어디로 이동해 갈 것인가에 관하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다니엘 벨(Daniel Bell, 1976)을 중심으로 한 탈산업사회론은 아직 개념틀의 수준에

3) 이러한 논의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위해서는 Levy & Murnane(1992)와 Horrigan & Haugen (1988)을 참조할 것.

서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으나 조금씩 서비스 중심 경제 사회를 설명하는 경험연구에 원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서비스 중심 경제에서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 및 정보의 생산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급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의 성장 및 단순 노동직의 쇠퇴를 예측한다. 그결과 장기적으로 소득 분포는 평준화의 방향으로 이행해 갈 것을 예측한다. 아펠바움과 알빈(Appelbaum & Albin, 1990)이나 존스톤과 팩커(Johnston & Packer, 1987)의 연구는 임금 분포의 변화와 관련하여 상위 임금 직업이 하위 임금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부분적 증거를 제시한다.

한편 모리스(Morris 등, 1994)와 로렌스(Lorence, 1991)는 서비스 산업의 증가가 남녀 근로자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증가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불균등하게 만드나 여성 근로자의 임금 분포는 상향 평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성 노동참여의 지속적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가족 소득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단순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블루스톤과 해리슨(1988)과 맥스웰(Maxwell, 1990)은 서비스산업 증가가 임금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소득 분포에 단순 확대 적용하여 중간 소득 계층의 감소를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업구조 변화의 소득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의 한 계를 다음의 두가지에 촍점을 맞추어 극복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족 소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성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외에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서비스산업이 70%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며 내적으로 극도로 다양한 산업 구성을 포함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논의가 제조업 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분법을 적용함으로써 분석의 유의미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한다.<sup>4)</sup> 이는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일차 산업을 제외한 잔여 범주로 보는 대신 서비스산업 내에서 기능별로 몇개의 동질적인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비스산업의 하위범주에 있어서의 변화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여기서는 브라우닝과 싱글맨(Browning & Singelmann, 1975)의 서비스 산업 하위 분류 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한다. 서비스산업 증대와 더불어 임시고용 노동력의 증기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Pfeffer & Baron, 1988). 임시 고용의 증가는 제조업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

4) 산업공동화론의 경우 유통업을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 예로 들어 분석했으나 유통업에의 고용은 전체 서비스산업 고용자의 1/3에 불과하며, 탈산업사회론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를 서비스 산업의 대표로 들어 주장을 전개하나 이 부분은 전체 서비스산업 고용자의 5%에도 못 미친다.

가 서비스 산업의 증가 때문인지 임시고용의 증가 때문인지를 구분해 판별하고자 한다.

이중노동시장론자(Dual Labor Markets theorist)들은 자본주의의 진행에 따라 이중 노동시장구조의 확대를 예측한다(Gordon 등, 1982). 경쟁적 부문(competative sector)의 확대는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독점부문에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만을 남길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노동시장구조를 반영하는 척도로서 소규모 작업장 종사원의 비율을 포함한다.

### 3. 가족 구조 및 여성노동참여에 있어서의 변화

이혼 및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하는 전통 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이혼후 수년 이내에 재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손 가정의 가장은 여성이거나 혹은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결손 가정 특히 여성가장가족(single-mother family)이 늘어남에 따라 빈곤 소득층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여성노동참여의 증가가 가족 소득의 분포를 평준화시킨다는 주장은 과거 많은 경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Smith, 1979, Treas, 1987, Maxwell, 1990). 이는 주로 낮은 임금의 남편을 둔 부인들이 가계의 여력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 가족의 부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문제로 참여를 꺼려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1960-70년대 여성해방 운동 이후 여성차별의 축소와 여성의 노동참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대두로 인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 중산층 이상 가족의 부인들이 점차로 노동 참여를 높여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본 연구의 연구 기간(1977-1991)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다른 여성노동참여의 가족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Maxwell 1990).

### 4. 사회 복지정책 및 거시경제조건의 변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문제는 빈곤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공공 부조를 확대할 것인가 혹은 고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에 촛점이 모아진다(Treas 1983). 본 연구에서는 가족 소득에 관계된 대표적 공공 부조로서 미혼모 가정에 주어지는 공공

부조인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에 촛점을 맞추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관찰한다. 다른 한편으로 거시경제조건의 변화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고용촉진 정책의 빈곤층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판별한다. 빈곤층 가족은 노동시장에서 한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불경기가 도래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 빈곤층을 구제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5. 인구 구조의 변화

전후 아기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들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논의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Welch 1979). 이는 노동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연령집단의 규모가 그들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는 논의로 일반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출한지 얼마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연소한 경제활동연령대(25-34세)의 인구 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또한 노년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서 노년 인구의 비율이 가족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대될 것이다.

〈표 1〉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방법론적 측면을 논의할 때 검토하기로 한다.

### III. 분석의 틀

가족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념적 및 방법론적인 측면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 분석 모델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자.

가) 한 사회 구성원간의 재화의 분배를 만들어 내는 최소 단위는 가족이므로 가족 소득의 불평등을 연구의 촛점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소득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세전 화폐 소득에 국한한다.

나) 다양한 종류의 가구 유형이 존재한다. 크게는 가족 가구와 비가족 가구로 구분되며 비가족 가구의 경우 연령 구성, 소득원, 소득의 분포에 있어 가족 가구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가족소득 불평등의 분석에 있어 두가지의 질적으로 상반된 가구 유형을 함께 포괄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가족 가구의 사회적 제 부문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족 가구로 연구 대상을 제한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를 연구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가족 가구 소득의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족 가

구 소득과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 소득 분포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기존의 모순된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표 2> 참조). 이는 하나의 지표로는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이다(Coulter, 1989). 예컨대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지수의 경우 소득 분포 상의 가운데 층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진 반면 또 다른 불평등 지표인 타일(Theil) 계수는 소득 하위층에 보다 큰 비중을 둠으로 인하여 두 지수간에 불평등 측정치의 차이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포괄적인 불평등 지표에 있어서의 증가 혹은 감소가 소득 분포의 구성 부분 예컨대 중간층에 있어서의 증가 혹은 감소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불평등 지표로서 지니지수를 쓰며,<sup>5)</sup> 동시에 소득 분포를 삼등분하여 하위, 중위, 상위 소득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 집단의 변동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불평등 변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도모한다. 여기서 소득 분포의 삼등분은 각 연도의 가족소득 분포의 중간값으로부터 하위 60%와 상위 180% 사이를 중위 소득 계층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6)</sup> 이 범위는 통상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유지할만한 소득수준에 가깝게 정하여졌으며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체 가족수의 50-60%를 포괄한다.

라) 가족의 규모가 다름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소득으로도 가족간의 경제적 수준은 다를 것이다. 이점에 대한 검토는 가족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에 의해 차등 비중을 준뒤 소득 분포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sup>7)</sup>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자세한 검토는 생략하고, 단지 이러한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비중을 둔 분석의 경우도 가족 규모에 비중을 두지 않은 분석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다.

마) 이 연구의 촛점중 하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하는 산업 구조 변화의 소득 구조

- 5)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보고하지 않으나, 분석 결과 타일계수를 쓴 분석도 지니계수를 이용한 경우와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의 설명에 있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 6) 이러한 중간층의 범위설정은 두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 하나는 다양한 중간 소득 계층의 범위에 대하여 각 소득 계층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계층의 정의에 관계없이 중간 소득층의 일관된 감소 경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Horrigan & Haugen, 1988). 다른 하나는 기존의 소득중간층의 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을 채택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 7) 이는 정부에서 산정하는 최저생계비가 가구의 규모 및 연령구조를 고려하여 차등적인 척도로 이루어 진 점을 이용하여 화폐 소득을 각 가구당 규모 및 연령구조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배율로 환산하여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 2〉

## “중간층 감소론”을 둘러싼 경험연구

연구자	연구대상기간	분석단위/ 모집단	소득의 정의	중간층의 정의	연구결과
Thurow (1987)	1976-85	전체 남성근로자 및 전일제 연중고용 남성근로자	연간 총임금	전일제 연중고용 남성 근로자의 임금 중앙값의 75-125%	전체 남성근로자 및 전일제 연중고용 남성근로자 모두에게 있어 중간소득 일자리의 감소를 확인함
Bluestone & Harrison (1986,1990)	1973-87	16세 이상의 전체 임금근로자	연간 총임금	1973년 임금중앙값의 50-200%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매년도 조정함	1973년 이래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임을 확인. 성, 난령, 인종, 교육수준, 업종에 관계없이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를 확인. 이러한 추세는 대졸이하, 35세 이하 남성,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뚜렷함. 남성근로자들간에 불평등의 U자 모양의 추이를 발견함.
Karoly (1993)	1963-89	가족	가족 소득	10%, 25%, 75%, 90%의 백분위의 위치로서 정의	가족 및 개인 소득 양자에 있어 1970년대 중반 이래 소득 하층 및 상층 간의 격차가 확대됨. 1980년대 들어와 소득 상층 내에서의 격차가 확대됨을 발견함.
Horrigan & Haugen (1988)	1969-86	가족	가족 소득	소득 중앙값의 68-10%	중간소득층의 감소를 확인, 소득 하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소득 상층은 증가함.
Levy(1987)	1947-84	전체 가족 및 가구주, 65세 미만의 가족	가족 소득	소득 백분위의 25-75%	중간층의 총소득은 안정적인 반면, 하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상층의 소득은 증가함. 1970년대 초이래 가구주 65세 미만 가족들의 소득 불평등도는 증가함.
Blackburn & Bloom (1987)	1967-85	전체 가족 및 개인	가족 소득, 개인 임금	소득 중앙값의 100-160%	중간층의 감소, 상층의 증가, 하층의 안정세를 확인함. 이러한 추세는 총 가족소득 및 총 가족임금의 양자에서 확인됨.

〈표 2〉 계속

연구자	연구대상 기간	분석단위/ 모집단	소득의 정의	중간층의 정의	연 구 결 과
Bradbury (1986)	1973-84	가족 및 단독 가구주	가족소득	1984년의 불변가격 으로 환산한 \$20,000 에서 \$49,000의 범 위	중간층의 감소, 상층의 증가, 하층의 안정을 확인. 중간층의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은 결손가족의 증가로 나타 남.
Bradbury (1990)	1979-88	65세 미만의 가족	가족소득 및 가족 총임금	소득 배분위의 25-75%	25% 배분위 소득의 현저한 감소 및 75% 배분위의 현저한 증가를 확인
Lawrence (1984)	1969-83	전일제 고용 근로자	주당임금	남성근로자 주당임 금 중앙값 66-133%	남성근로자의 경우 중간층이 감소함. 여성근로자의 경우 중간 및 상층의 증가를 확인.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 포에서 중간층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서비스업의 증가, 여성근로자의 증 가, 연령구조 변화가 가장 큰 기여를 함.
Burtless (1990)	1954-86	임금근로자	개인 임금	임금 배분위의 25-75%	1980년대 이래 75% 배분위가 50% 배분위 대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
Rosenthal (1985)	1973-82	직업	전일제 근로 자의 주당임 금의 중앙값	임금 중앙값의 25-75%	중, 저임금의 직업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고임금 직업의 비율은 감소함.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임금의 보다 빠른 상승을 확인.
McMahon & Tschetter (1986)	1973-85	직업	전일제 근로 자의 주당임 금의 중앙값	임금 중앙값의 25-75%	중간층 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확인. 각 임금층의 일자리 내에서도 임금 수준의 하향추세를 확인

에 미치는 효과임을 서두에서 밝혔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이 내적으로 극도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브라우닝과 싱글맨(1975)의 연구를 따라 서비스산업을 내적으로 동질적인 여섯개의 산업군으로 묶어 각 서비스산업의 변화의 영향력을 본다. 여섯개의 서비스산업은 유통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기간 설비를 포함하며 제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기ガ스 운수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개인 서비스, 교육 및 의료 등 비영리 부문의 서비스, 그리고 공공행정 서비스이다.

직업 구조의 변화 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소득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두가지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만을 설명요인으로 포함하였다. 하나는 직업 구조와 산업 구조는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두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방법론상의 난관에 봉착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 구조의 변화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보다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직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 인과적 선후 관계에 대한 고려이다. 이는 물론 직업 구조의 변화가 소득구조의 변화보다 덜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직업 구조와 소득 구조 변화간의 상관 관계 분석은 별도의 연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

바) 본 연구는 주(state)를 경험 분석의 단위로 한다. 본래의 관심사는 미국 전체의 소득 구조 변화의 설명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나 설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유의미한 지역구분 단위인 주를 선택하기로 하였다.<sup>8)</sup> 주 간의 비교는 전국적 소득 구조 변동의 설명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각 지역 서로간의 변인을 찾도록 하며 아울러 각 요인의 판별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가 대신 주가 분석의 단위가 되므로 주의 생태학적 변인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에 봉착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주의 경제 규모를 표시하는 지표(Gross State Product)와 주의 인구 규모 및 남북, 동서 지역간의 격차 판별을 위한 비교 변수를 측정 모델에 포함시킨다.

사) 기존의 많은 연구가 연구 대상의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소득 분포의 변화 추세에 대한 주장이 달랐던 점(〈표 2〉 참조)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최근 소득 불평등 확대 추이에 관한 가장 쟁점적인 기간인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 년도 까지를 포괄한다. 정확히는 1977-1991년의 15년간의 “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 Annual Demographic File”을 분석 자료로 이용한다.

#### 아) 측정 모델 :

본 연구는 변화의 요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으로 분석 자료의 성격상 가장 적합한 모델인 횡단축과 시계열축을 혼합한 “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순수 결정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변화의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주 목표이므로 종속변수보다 한시점 늦추어진 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회귀요인의 하나로 포함시킨다. 측정 모델의 수리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Y_t = \beta_0 + \beta_1 Y_{t-1} + X_t \boldsymbol{\beta} + e_t$$

8) Theil 불평등계수를 이용한 요인분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미국 전체를 단위로 한 분석도 제한적이거나마 가능하기는 하다.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상 방법론적인 세부 논의는 생략하며, 단지 필자가 시도한 1970, 1980, 1990의 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전체를 분석단위로 한 별도의 요인분해 분석도 여기서 보고하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음을 보고한다.

여기서  $X_t$ 는  $t$  시점에서 측정된  $k$  개의 독립변수의 매트릭스이며  $\beta$ 는 그에 상응하는 상수의 매트릭스이고  $Y_{t-1}$ 는 “lagged dependent variable”이다. 지니 불평등 지수 및 하층, 중층, 상층 소득집단의 비율을 각각 종속 변수로 하여 위의 모델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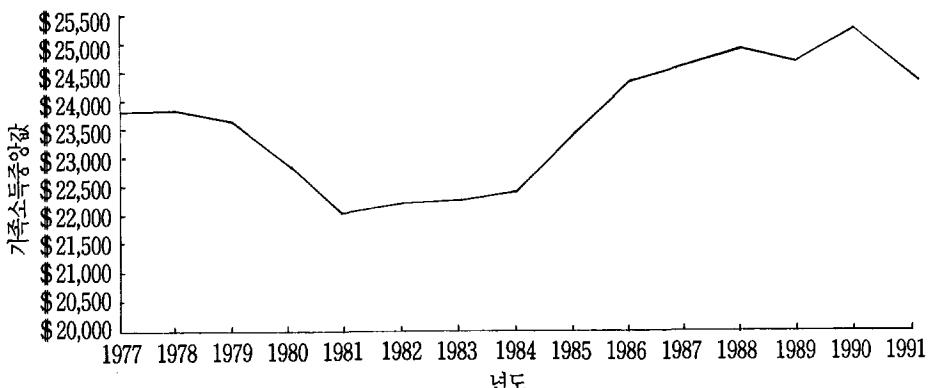
여기서 각 변수는 비율로 표현되므로 비율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밀수인 각 주의 인구 규모가 대부분의 변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 경우 회귀 분석 모델은 오차의 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문제(heteroskedasticity)를 포함하게 되므로 오차의 구조(error structure)를 미리 가정하여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 변수는 각 주의 인구 규모에 의해 조정된 변형치로서 회귀 분석에 투입된다. 또한 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회귀 분석의 속성상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으로는 효율적인 상수값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방법을 이용하여 상수의 측정을 시도한다.

#### IV. 가족 소득 불평등의 추세

일인당 평균 소득은 전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은 현저히 감소해 가고 있다. 1960년대에 22.2%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14.3%의 증가 밖에 보이지 못한다. 또한 가족소득 및 남성 근로자 임금의 분포에 있어 1970년대 이후 불평등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두개의 부정적인 경향의 진행과 동반하여 범죄율이 증가함으로써 현재의 미국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이전의 세대 보다 실질 소득이 낮고 보다 불평등한 어두운 사회로 이전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그림 1〉

가족소득 중앙값의 추이 (197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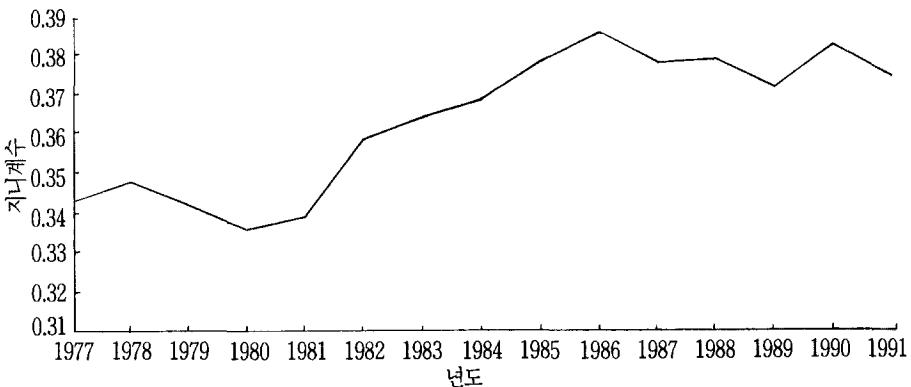


경향을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그림 1>에서 소득 중앙값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2-84년 평균 불변 가격으로 환산할 때 가족 소득 중앙값은 1977년 \$23,798에서 1991년 \$24,447로 15년 간 2.7%의 증가에 그쳤으며 1980년대초의 불경기를 반영하여 큰 폭의 후퇴를 경험하였다. 지니 소득 불평등 지수 또한 소득 중앙값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그리며 같은 기간 동안 상승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1977년 지니 값은 0.34271에서 1991년에는 0.34387로 9.1%의 증가를 보인다. 지니 지수는 소득 중앙값의 변화와는 시간차를 두면서 불경기에 상승하여 그 이후 여파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lt;그림 2&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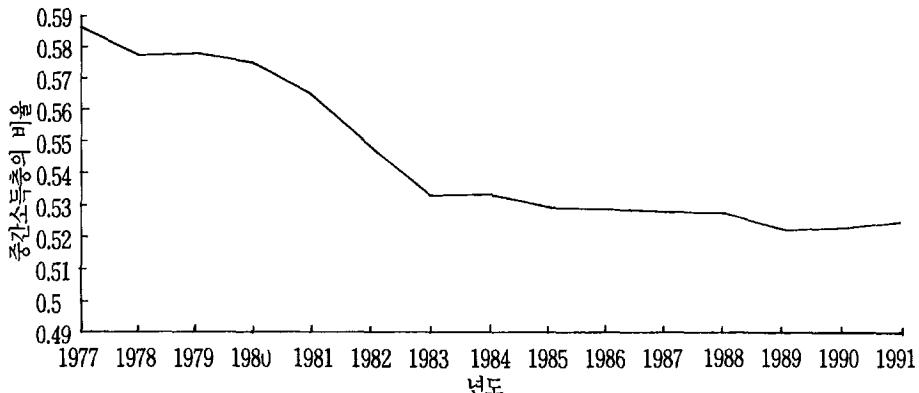
지니계수의 추이 (1977-91)



<그림 3-1, 2, 3>은 각각 하위, 중위, 상위 소득층의 비율에 있어서의 변동 양태를 보여준다. 이 세 그림의 비교를 통해서 중위 소득 집단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하위 및 상위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에 지속된 유형에 있어서의 변화의 징조를 의심할 수는 있으나 아직 뚜렷한 변화의 유형을 판별하기에는 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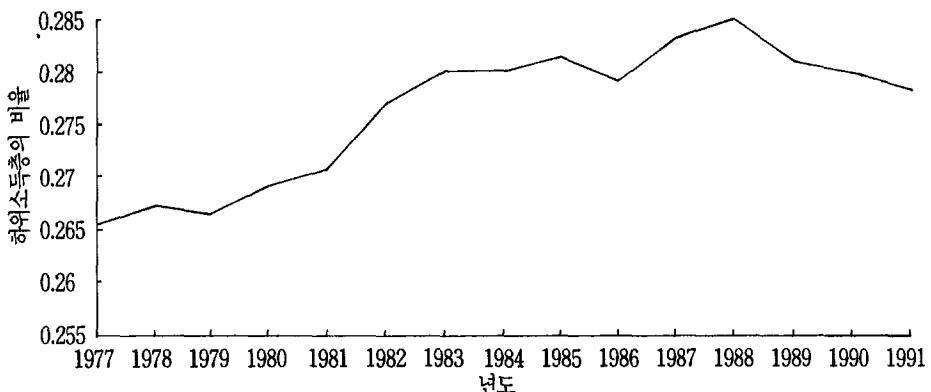
〈그림 3-1〉

중간소득층 비율의 변화 (197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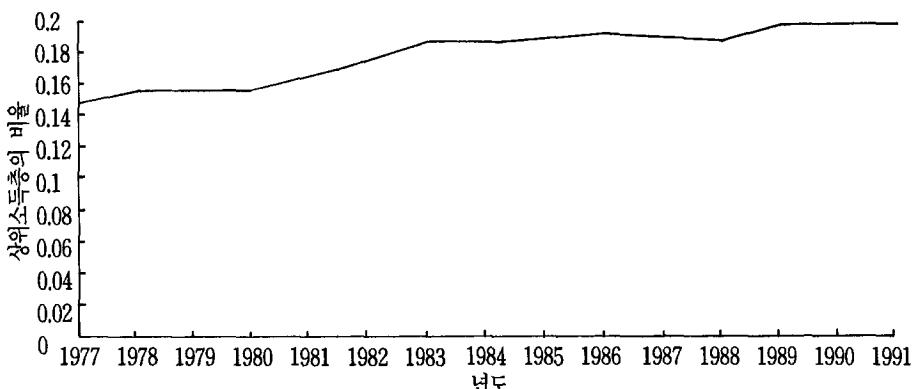
〈그림 3-2〉

하위소득층 비율의 변화 (1977-91)



〈그림 3-3〉

상위소득층 비율의 변화 (1977-91)



## V.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 분석

### 1. 포괄적 불평등 상승의 원인 분석

지난 15년간 소득 불평등 상승의 요인을 먼저 포괄적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를 회귀분석해 봄으로서 찾아 본다. 이 분석의 목적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의 순수 효과를 측정하여 각 요인에 대응하는 가설의 진위를 판별하는데 있다. 여기서 찾아진 결정 요인은 다음 절에서 각 소득 집단별 변화율을 회귀분석하므로 재확인되고 보다 상세화될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되는 요인의 수가 많으므로 이 많은 요인들의 효과를 하나의 모델로 한번에 추정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구분지어진 변수의 집단별로 차례로 모델 추정 과정에 도입하여 그 중 적합하지 않은 변수들은 골라내어 버리고 남은 요인들의 순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cumulative modeling method)을 취하기로 한다.

〈표 3〉에 제시된 일곱개의 모델은 이러한 모델 선택 방법에 따라 네개의 변수 집합을 차례로 도입하여 가장 적합한 결정요인을 뽑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변화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포함시킨 “lagged-dependent variable”的 상수 측정치는 예상했던 대로 전 모델들에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먼저 인적 자본의 변수들을 살펴 보면, 평균 교육 수준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인적 자본론을 따르는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며 쿠즈네츠의 가설과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의 이론 검토의 부분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적 자본론이 개인의 임금 결정에는 높은 설명력을 가지나, 대상 인구 전체의 소득불평등도의 설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게 된다. 예상했듯이 교육 수준의 격차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가족, 인구 및 경제 상황에 관련된 요인의 경우 여성가장 가족 혹은 미혼모의 증가는 현저하게 불평등을 높이며 이 효과는 비교적 크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에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노동참여의 소득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로서, 1970년대 중반 아래 여성의 노동참여에 있어 전파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1970년대 이전에는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의 대다수가 빈곤층 출신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 관행의 감소와 여성 자신의 노동참여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중산층 이상의 기혼 여성

9) 저자의 1994년 한국 여성학회 발표 논문, “미국 사회에 있어 여성 노동참여의 신경향” 참조.

〈표 3〉

지니계수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Lag(Gini)	.702(25.62)	.565(18.01)	.549(17.48)	.478(14.53)	.485(15.10)	.503(16.13)	.503(16.10)
<u>인적 자본</u>							
평균 교육수준	.010(9.80)	.007(4.25)	.010(2.46)	.013(2.59)	.012(3.45)	.010(4.83)	.012(5.13)
교육수준의 편차	-0.72(-2.56)	-0.80(-2.68)	-0.046(-1.20)	-0.015(-.31)	-	-	-
대출자이상 비율	-.000(-.50)	-.000(-.203)	-.000(-2.78)	-.000(-2.11)	-.000(-2.20)	-.000(-2.28)	-.000(-2.40)
<u>가족, 인구, 경제</u>							
여성가장 가족		.196(4.95)	.258(6.10)	.286(6.44)	.288(6.52)	.257(6.41)	.261(6.46)
AFDC 지급률		-.000(-.57)	-.001(-.92)	.001(.67)	.001(.63)	-	-
여성노동참여		.000(1.69)	.000(.93)	-.000(-.69)	-.000(-.84)	-	-
젊은인구 비율		-.041(-1.40)	-.088(-2.61)	-.040(-1.16)	-.043(-1.35)	-.045(-1.62)	-.066(-2.31)
노년인구 비율		.188(4.92)	.180(4.63)	.164(4.09)	.162(4.08)	.167(4.72)	.172(4.79)
비배인 비율		.093(4.13)	.102(4.30)	.123(4.61)	.121(4.80)	.132(5.60)	.136(5.75)
실업률		.001(3.11)	.001(1.78)	.001(1.70)	.001(1.59)	.001(2.30)	.001(2.17)
주총생산 성장율		.000(.93)	.000(.05)	.000(.84)	-	-	-
<u>산업구조</u>							
제조업종사자율			-.011(-.32)	.046(1.04)	.044(1.89)	.049(2.53)	-
서비스업종사자율			-.079(-1.91)	-.005(-.09)	-	-	-.055(-2.33)
임시고용자비율			.066(1.62)	.057(1.39)	.070(1.90)	.072(2.07)	.086(2.52)
소사업장종사자율			.001(2.83)	.001(3.09)	.001(3.49)	.001(4.07)	.001(3.79)
<u>생태학적 요인</u>							
도시거주자 비율				-.067(-1.42)	-.060(-1.69)	-.063(-2.36)	-.033(-1.35)
주인구 규모				-.000(-3.90)	-.000(-3.95)	-.000(-.545)	-.000(-5.63)
<u>동북지역</u>							
중서부지역				-.006(-1.39)	-.007(-1.61)	-	-
서부지역				-.001(-.307)	-.001(-.33)	-	-
				-.005(-1.14)	-.005(-1.17)	-	-
자유도	668	660	656	651	654	659	659
Square root MSE	29.86	28.05	27.82	27.14	27.11	27.13	27.13
<u>변량분석</u>							
Cross Sections	165.60	89.00	86.79	98.59	95.85	86.15	89.05
Time Series	65.46	31.91	21.09	20.95	21.55	24.18	24.06
순수 교란요인	828.93	744.75	739.20	715.24	713.39	716.60	716.64

\* 회귀계수의 예측치 및 t 값(괄호)이 보고됨

〈표 4〉 서비스업 재분류를 이용한 지니계수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델 8	모델 9	모델 10
Lag(Gini)	.456(13.71)	.462(14.28)	.487(15.05)
<u>인적 자본</u>			
평균 교육수준	.014(3.33)	.011(6.97)	.007(6.22)
대출자이상 비율	-.112(-2.56)	-.103(-2.62)	-
교육수준의 편차	-.000(-2.35)	-.000(-3.73)	-.000(-3.81)
<u>가족, 인구, 경제</u>			
여성가장 가족	.216(4.83)	.206(4.78)	.241(5.91)
AFDC 지급률	.000(.18)	-	-
여성노동참여	-.000(-.46)	-	-
젊은인구 비율	-.048(-1.49)	-.044(-1.55)	-.053(-1.89)
노년인구 비율	.126(3.09)	.116(3.24)	.141(4.09)
비백인 비율	.164(6.39)	.158(6.35)	.136(5.67)
실업률	.001(1.56)	.001(1.86)	.001(2.60)
<u>산업구조</u>			
서비스업종사자율			
전기, 가스, 통신업	-.093(-1.18)	-	-
유통업	-.027(-.58)	-	.064(1.99)
생산자서비스	.087(1.54)	.083(1.52)	-
개인서비스	-.112(-2.69)	-.095(-2.95)	-
의료 및 교육	-.031(-.69)	-	-
공공행정	-.121(-1.63)	-.113(-1.62)	-
임시고용자비율	.094(2.41)	.100(2.82)	.086(2.54)
소사업장종사자율	.001(3.62)	.001(3.83)	.001(2.84)
<u>생태학적 요인</u>			
도시거주자 비율	-.014(-.39)	-	-
주민구 규모	-.000(-4.68)	-.000(-4.89)	-.000(-5.88)
자유도	651	657	660
Square root MSE	26.84	26.81	27.11
<u>변량분석</u>			
Cross Sections	118.57	112.29	105.69
Time Series	16.76	16.80	20.16
순수 교란요인	698.28	698.93	715.13

\* 회귀계수의 예측치 및 t 값(팔호)이 보고됨

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이전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에서 확고하게 주장되었던 여성 노동참여의 소득평준화효과는 1980년대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서는 더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뜻한다. 여성가장 가족을 겨냥한 공공부조 정책의 소득불평등 경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불경기의 도래로 인한 고용수준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25-34세)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본다.

다음으로 노동 시장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자. 제조업 부문 고용의 감소는 산업공동화론자의 주장과는 반대로 소득불평등을 늘이기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포괄적인 범주로서의 서비스산업 부문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본다. 그러나 예측했던 바와 같이 임시 고용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높이며 이중노동시장구조가 확대됨으로서 소득불평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모델 8, 9, 10을 통해 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산업 중 어떤 부분이 어떠한 소득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른 요인의 효과에 있어서는 앞의 <표 3>에서 제시된 1에서 7까지의 모델과 크게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 산업을 여섯개의 내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쪼개어 보았을 때, 유통업의 경우 산업공동화론자의 주장과 같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이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서비스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으로 인하여 충분한 유의미도를 확보할 수는 없으나 생산자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서비스 산업 고용의 증가가 산업공동화론자의 주장이나 탈산업사회론자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유통업은 1970년대 까지는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그 이후 고용규모의 정체양상을 보이는 반면 교육 및 사회 서비스, 행정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의 증가는 근래로 올수록 그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업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서비스 산업의 전체적인 고용 증가가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산업공동화론의 획일적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 이외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산업 전체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이를 새로운 성장 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건강 및 교육 서비스와 공공부분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비스 산업내에서도 높고 이 부문의 상대적인 성장속도 또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모델 7에서 서비스 산업 전체의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공동화론자의 예측과는 반대로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이해될 수 있다.

## 2. 각 소득 계층의 증감 요인 분석

중간 소득층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 어떤 요인 때문일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하위, 중위, 상위 소득 계층의 비율을 회기 분석하여 각각의 변화의 요인을 밝히기로 한다. 각각의 소득 계층의 증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각각의 변화 요인 파악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 2, 3〉은 중간, 하위, 상위 소득층의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인적 자본 관계 변수들을 살펴 보면 예상한 것처럼 평균 교육 수준의 상승은 중간 소득층을 늘리며, 반면 대졸자의 증가는 하위 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상위 소득층의 증가를 가져온다. 교육 수준의 격차가 클수록 하위 소득층의 비율이 증가하리라는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족, 인구, 경제조건 관련 변수들을 살펴 보자. 여성가장 가족의 확대는 중간 소득층을 감소시키고 하위 소득층을 증가시키는 결정력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장 가족에게의 공공 부조(AFDC)의 확대는 하위 계층에게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노동참여 증가의 효과는 미약하긴 하지만 앞 절에서 논의한 1970년대 후반 아래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는 듯 보인다. 즉 여성 노동참여가 소득 하위층의 감소 뿐만이 아니라 중간 소득층의 감소도 초래하며 그 결과로 소득 상위층의 증가를 가져오는 듯하다. 불경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중간 계층의 감소를 가져오며 하위 소득층을 증가시킨다. 또 다른 경제 조건의 지표인 주총생산량(Gross State Products)의 증가 즉 경기 호황 국면은 소득 상위층에게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나 소득 중위 및 하위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불경기가 상위 소득 계층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이는 경기 순환이 부유한 계층에게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임을 암시한다. 예측한 바와 같이 노년층의 증가는 소득 하위 계층을 늘인다. 반면 젊은 연령층의 증가는 하위 계층을 줄이는 효과를 보임을 확인한다. 혹 인 인구 비율의 증가가 포괄적인 불평등도의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상, 중, 하위 소득층의 어느 부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의외이다. 이는 인종적인 요인 보다는 그들의 가족구조적인 요인과 고용 상태에서의 영향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동 시장 관련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자. 제조업의 감소가 중간 및 상위 소득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 고용의 증가는 소득 구조의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점(즉 중간층의 감소와 함께 하위와 상위 소득 계층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은 산업 공동화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유통업으로 총칭되는 도소매업 종사자의 증가는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표 5-1〉

중간소득층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Lag(Gini)	.464(15.32)	.477(16.22)	.514(17.83)	.496(17.25)	.426(13.39)
<u>인적 자본</u>					
평균 교육수준	.021(4.24)	.019(5.41)	.026(7.73)	.026(8.75)	.029(8.24)
대출자이상 비율	-.441(-8.75)	-.426(-9.72)	-.435(-9.59)	-.422(-9.69)	-.438(-8.57)
교육수준의 편차	.000(.15)	-	-	-	-
<u>가족, 인구, 경제</u>					
여성가장 가족	-.401(-8.06)	-.401(-8.49)	-.344(-8.36)	-.376(-9.31)	-.338(-7.69)
AFDC 지급률	.000(.098)	-	-	-	-
여성노동참여	-.001(-1.58)	-.001(-1.84)	-.001(-2.44)	-.001(-2.82)	-.001(-1.62)
젊은인구 비율	.085(2.16)	.089(2.84)	.030(1.02)	.055(1.91)	-
노년인구 비율	-.005(-.13)	-	-	-	-
비백인 비율	-.028(-1.04)	-.024(-1.01)	-	-	-
실업률	-.003(-5.77)	-.003(-6.45)	-.003(-6.95)	-.003(-7.35)	-.003(-8.61)
주총생산 증가율	-.000(-.509)	-	-	-	-
<u>산업구조</u>					
제조업종사자율	.173(3.64)	.187(5.43)	-	.098(5.24)	-
서비스업종사자율	.131(2.43)	.144(3.09)	-.068(-2.54)	-	-
전기, 가스, 통신업					-.104(-1.24)
유통업					-.174(-3.91)
생산자서비스					-.258(-4.25)
개인서비스					-.017(-.39)
의료 및 교육					.042(.88)
공공행정					-.061(-.79)
임시고용자비율	.012(.25)	-	-	-	-
소사업장종사자율	-.000(-.37)	-	-	-	-
<u>생태학적 요인</u>					
도시거주자 비율	.114(2.43)	.101(2.80)	.188(5.93)	.143(4.80)	.210(6.58)
주인구 규모	-.000(-2.34)	-.000(-2.56)	-.000(-2.53)	-.000(-2.68)	-.000(-2.39)
자유도	654	660	662	662	658
Square root MSE	31.53	31.57	32.17	31.84	31.60
변량분석					
Cross Sections	127.09	97.01	114.77	89.63	118.79
Time Series	31.75	25.18	24.50	22.05	16.14
순수 교란요인	964.50	977.06	1012.20	997.80	997.98

\* 회귀계수의 예측치 및 t 값(괄호)이 보고됨

〈표 5-2〉 하위소득층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Lag(Gini)	.616(28.66)	.612(28.76)	.618(29.54)	.628(29.22)
<u>인적 자본</u>				
평균 교육수준	.001(.21)	-	-	-
대출자이상 비율	-.243(-5.55)	-.261(-8.53)	-.247(-7.80)	-.226(-5.80)
교육수준의 편차	.000(2.08)	.000(2.28)	.000(2.96)	.000(3.01)
<u>가족, 인구, 경제</u>				
여성가장 가족	.316(7.37)	.304(7.35)	.308(8.14)	.320(8.23)
AFDC 지급률	-.002(-2.56)	-.002(-2.55)	-.002(-3.29)	-.003(-3.55)
여성노동참여	-.000(-.36)	-	-	-
젊은인구 비율	-.093(-2.69)	-.064(-2.38)	-.061(-2.19)	-.066(-2.35)
노년인구 비율	.070(1.73)	.071(1.93)	.068(1.84)	.077(2.02)
비백인 비율	.020(.75)	.017(.71)	-	-
실업률	.002(3.51)	.002(4.90)	.002(4.88)	.002(4.74)
주총생산 증가율	-.000(-.96)	-	-	-
<u>산업구조</u>				
제조업종사자율	-.079(-1.85)	-.050(-2.07)	-	-
서비스업종사자율	-.054(-1.10)	-	.022(.84)	-
전기, 가스, 통신업				.026(-.35)
유통업				.003(.08)
생산자서비스				.03(.56)
개인서비스				.06(1.94)
의료 및 교육				.014(.37)
공공행정				-.023(-.31)
임시고용자비율	.048(1.16)	-	-	-
소사업장종사자율	.002(5.49)	.002(6.62)	.002(7.43)	.002(7.37)
<u>생태학적 요인</u>				
도시거주자 비율	.067(1.57)	.038(2.21)	.003(.19)	-
주민구 규모	.000(.86)	-	-	-
자유도	654	660	661	657
Square root MSE	27.04	26.98	27.07	27.13
<u>변량분석</u>				
Cross Sections	170.00	176.21	173.14	162.41
Time Series	21.17	20.33	18.12	18.42
순수 교란요인	681.39	684.08	689.49	692.39

\* 회귀계수의 예측치 및 t 값(팔호)이 보고됨

〈표 5-3〉

상위소득층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Lag(Gini)	.745(27.37)	.765(30.29)	.789(31.58)	.785(30.73)
<u>인적 자본</u>				
평균 교육수준	-.000(-.03)	-	-	-
대출자이상 비율	.249(5.20)	.245(6.99)	.188(5.42)	.221(5.56)
교육수준의 편차	-.000(-.84)	-	-	-
<u>가족, 인구, 경제</u>				
여성가장 가족	-.116(-2.70)	-.074(-2.57)	-.065(-1.96)	-.037(-1.02)
AFDC 지급률	-.001(-.61)	-	-	-
여성노동참여	.000(.27)	-	-	-
젊은인구 비율	-.029(-.82)	-	-	-
노년인구 비율	-.000(-.01)	-	-	-
비백인 비율	.010(.40)	-	-	-
실업률	.001(1.95)	.001(1.68)	.001(3.23)	.001(2.18)
주총생산 증가율	.000(1.82)	.000(1.85)	.000(1.95)	.470(1.57)
<u>산업구조</u>				
제조업종사자율	.068(1.58)	.078(5.15)	-	-
서비스업종사자율	.012(.24)	-	.044(2.56)	-
전기, 가스, 통신업				.078(1.06)
유통업				-.007(-.20)
생산자서비스				.020(.35)
개인서비스				.099(3.22)
의료 및 교육				.036(1.02)
공공행정				-.104(-1.44)
임시고용자비율	-.002(-.05)	-	-	-
소사업장종사자율	-.001(-1.66)	-.000(-1.52)	-.001(-2.58)	-.000(-1.54)
<u>생태학적 요인</u>				
도시거주자 비율	.021(.50)	-	-	-
주인구 규모	.000(1.50)	.000(1.17)	-	-
자유도	654	663	665	660
Square root MSE	27.52	27.62	28.06	27.86
<u>변량분석</u>				
Cross Sections	154.57	115.98	117.68	137.99
Time Series	24.57	30.01	26.04	32.66
순수 교란요인	692.76	721.03	735.22	722.08

\* 회귀계수의 예측치 및 t 값(괄호)이 보고됨

보인다. 반면에 다른 종류의 서비스업, 예컨대 생산활동을 보조하는 생산자 서비스 혹은 비영리의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예를 들면 교육, 의료, 등)들의 증가는 탈산업사회론자의 주장과 같이 소득분포상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집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 가스 통신업, 개인 서비스, 공공 행정 서비스의 경우 하위, 중위, 상위 소득 계층의 어느 부문에 대하여도 일관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점은 서비스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어느 이론도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확대는 하위 소득 집단의 증가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다.

## VII. 결 론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여러 가설들에 대하여 그 순수 결정력을 판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세가지 요인, 즉 가족 구조에 있어 여성가장 가족의 증가 현상과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 노년층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지난 15년간 관찰되어온 가족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기존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되었던 여성의 노동참여 증대의 소득평준화 효과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여성노동참여의 새로운 경향으로 인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효과를 보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기타 다른 요인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결정력은 불분명하거나(인적자본 관련 요인), 주기적이거나(설업율), 충분한 크기의 효과를 갖지 않거나(복지정책)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구조의 변화나 노년층 증가의 효과의 경우 그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나, 산업 구조 변화의 효과에 있어서는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산업 공동화론이나 탈산업사회론의 어느 것도 만족스럽게 설명을 제시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부분적으로는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중간 소득층의 감소와 함께 소득 하위 및 상위층의 증가를 가져오는 듯이 보이나 이것이 포괄적인 불평등 수준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변화의 크기가 크지는 않은 듯하다. 이는 기존의 이론이 서비스 산업을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로 가정하여 -특히 유통업의 경험에 근거하여 타서비스 산업부문에 확대 해석하여- 논의를 발전시킨 데 그 원인이 있으며, 단순히 상품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생산 중심으로 산업경제가 이행한다는 점 자체만 보아서는 소득구조 변화의 올바른 설명 요인을 밝힐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각 부문의 변화 요인은 서로간에 상이하며, 변화의 크기 및 효과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소득 불평등 증대 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성 가장 가족을 줄이려는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확인하

게 된다. 부부가 함께하는 가족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혼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서 여성 가장 가족의 산출이 합리적 선택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산업 공동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제조업의 촉진 정책이 반드시 소득의 평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 대안이 될 수는 없음을 본 연구는 밝힌다. 복지 정책 확대와 실업율의 효과 비교에서 논의하였듯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는 복지 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의 고용률 높이는 정책이 더 효과가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의 앞날에 대하여 예측한다면, 가족소득 불평등이 감소될 가능성성이 적다고 하는 예측이 현재까지의 추세에 근거한 가장 공정한 결론이 될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추세가 계속되는 한 여성 가장 가족의 비율과 노년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는 불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서비스 산업 중대의 경우 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불평등을 높이는 부문(유통업, 생산자 서비스)과 줄이는 부문(의료 교육 서비스, 공공 서비스)이 공존하므로 그 효과는 가까운 미래에 어느 방향으로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참여의 경우 증가세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될 것이나 소득하위층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정체되는 반면 중, 상류층 가족 출신의 기혼 여성들이 보다 많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 사회의 구조적 힘은 가족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sup>10)</sup>

### 〈참 고 문 헌〉

Appelbaum, Eileen and Peter Albin

1990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growth in service industries. pp. 36-53 in Eileen Appelbaum and Ronald Schettkat ed. *Labor Market Adjustments to Structural Change and Technological Progress*. New York : Praeger.

Blackburn, Mckinley L. and David E. Bloom

1987 "Earnings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10) 1994년도 Current Population Survey 결과 발표에 따르면 1993년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전년도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Review* 13(4):575-609.

Bluestone, Barry

1990 "The great U-turn revisited : economic restructuring, jobs, and the redistribution of earnings." pp. 7-44 in John D. Kasarda ed. *Jobs, Earnings, and Employment Growth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Norwell, Massachusett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Bluestone, Barry and Bennet Harrison

1986 *The Great American Job Machine : The Proliferation of Low Wage Employment in the U.S. Economy*. A Report for Joint Economic Committee. Washington, D.C.

Bluestone, Barry and Bennet Harrison

1982. *The D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NY : Basic Books

Bradbury, Katherine L.

1990 "The Changing fortunes of American families in the 1980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 25-40.

Bradbury, Katherine L.

1986 "The shrinking middle clas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September/October : 42-55.

Browning, Harley L. and Joachim Singelmann

1975 *The Emergence of a Service Society :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Aspects of the Sectoral Transformation of the Labor Force in the U.S.A.* Springfield, Virgenia :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Burtless, Gary

1990 "Earnings inequality over the business and demographic cycles." pp. 77-117 in Gary Burtless ed. *A Future of Lousy Jobs? The Changing Structure of U.S. Wages*.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Coulter, Philip B.

1989 *Measuring Inequality : A Methodological Handbook*.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Gordon, David, Richard Edwards and Michael Reich,

1982 *Segemented Work, Divided Wo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rison, Bennett and Barry Bluestone

1988 *The Great U-Turn*. NY : Basic Books,

- Horrigan, Michael and Steven E. Haugen  
1988 "The declining middle-class thesis : a sensitivity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111:3-13.
- Johnston, William and Arnold Parker  
1987 *Workforce 2000 : Work and Worker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dianapolis, IN : Hudson Institute.
- Karoly, Lynn A.  
1993 "The trend in Inequality among families, individuals, an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 A twenty-five year perspective" pp. 19-97 in Danziger, Sheldon and Peter Gottschalk, (eds.), *Uneven Tides :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Karoly, Lynn A.  
1992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1967-1986."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1):107-15.
- Kuznets, Simon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1-28.
- Lawrence, Robert Z.  
1984 "Sector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he Brookings Review* Fall : 3-11.
- Lee, Hyun Song  
1994 *Sources of Change in Family Income Inequality*. Ph.D dissertation i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 Levy, Frank  
1987 *Dollars and Dreams: The Changing American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Levy, Frank and Richard J. Murnane  
1992 "U.S. Earnings levels and earnings inequality : A Review of recent trends and propose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60:1333-1381.
- Lorence, Jon  
1991 "Growth in service sector employment and MSA gender earnings inequality: 1970-1980." *Social Forces* 69(3):763-783.
- Maxwell, Nan L.

- 1990 "Chang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fluences on income inequality and distribution." *Social Forces* 68(4):1251-1266.
- McMahon Patrick J. and John H. Tschetter  
1986 "The declining middle class: a further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September) : 22-27.
- Morris, Martina, Annette D. Bernhardt, and Mark S. Handcock  
1994 "Economic Inequality: New Methods for New Tr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2) : 205-219.
- Noyelle, Thierry  
1986 *Beyond Industrial Dualism: Market and Job Segmentation in the New Economy*. Boulder, CO: Westview Press.
- Pfeffer, Jeffrey and James N. Baron  
1988 "Taking the workers back out: Recent trends in the structuring of employment." *Resera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257-303.
- Rosenthal, Neal H.  
1985 "The shrinking middle class: Myth or reality?" *Monthly Labor Review* 108 (3):3-10.
- Ryscavage, Paul, Gordon Green, and Edward Welniak  
1992 "The impact of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pp. 11-30 in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V.183.
- Smith, James P.  
1979 "The distribution of Family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 S162-192.
- Stanback, Thomas M., and Thierry J. Noyelle  
1982 *Cities in Transition: Changing Job Structures in Atlanta, Denver, Buffalo, Phoenix, Columbus, Ohio, Nashville, and Charlotte*. Totowa, NJ: Allanheld, Osmun.
- Thurow, Lester C.  
1987 "A Surge in inequality." *Scientific American* 256(5):30-37.
- Treas, Judith  
1987 "The effe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259-88.

Treas, Judith

1983 "Trickle down or transfers? Postwar determinants of family incom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august):546-559.

Welch, Finis

1979 "Effects of cohort size on earnings : the baby boom babies financial bu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October):s65-97.

## Why Does Family Income Inequality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Hyun Song Lee

Since the mid 1970's, both family income and men's earnings have became more unequal. In this study, I attempt to find an explanation of the growing inequality focusing on family income. I apply a 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regression model using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for the period of 1977 through 1991. The search for the determinants of growing inequality proceeds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aggregate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inequality index i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regression model. In the second stage, the share of each of the three income classes(lower, middle, and upper class) is used as the dependent. This class-based analysis reveals what factor has a significant effect in which part of the income distribution.

The factors included in this analysis are human capital variables, industrial shifts, labor force status, labor markets dualism, family structure, social welfare paymen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region. I observed that the income effect of the expansion of service sector varies among various sub-fields of service sector.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sector decreases the share of middle class significantly as Deindustrialization thesis argues. But this study also gives a partial support to the opposing theory, Post-Industrial society thesis. Service sector growth increases the share of upper clas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growth of single mother family and retirement-age people has a detrimental effect of substantial size

on the income distribution. The growth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does not have equalizing effect as predicted in previous studies, which enables us to suspect a new trend in the growth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since the late 1970's. Considering all the factors together, I conclude that family income inequality is more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이현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Tel : 355-8003